



## 지역복지 네트워크를 통한 효과적인 지역복지사업

자료제공: 박 인숙, 김수진 이대성산종합사회복지관 지역사회발전센터 사회복지사

**A**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이대성산종합사회복지관(이하 이대성산)은 2002년 10월부터 사회복지 공동모금 회의 3년지원으로 ‘주민조직을 활용한 저소득지역 주민 임파워먼트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부서로 지역사회발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사회발전센터는 복지관이 위치한 성산임대아파트 주민의 임파워먼트에 목적을 두고 성산임대아파트 단지 주민조직의 구성 지원, 주민조직 운영, 주민지도자 발굴 및 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영구임대아파트 주민과 인근 지역 주민의 교류,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심 향상을 위한 지역복지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현재 이대성산종합사회복지관 지역사회발전센터는 지역복지 네트워크 참여 단체들과 공동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복지사업 확대를 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마포지역복지네트워크와 마포마을축제위원회가 있다.

### 마포지역 복지네트워크, 지역단체 공동합의로 네트워크 구성

이중 2004년 상반기에 실시된 아현동 조사사업은 마포 지역 복지네트워크를 통해 추진되었다. 아현동 조사사업은 저소득층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단순히 조사에 그치지 않고 이를 통해 사회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층을 발굴하고 이들에게 반찬 지원, 보건의료 서비스의 제공하는 등 지속적인 연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지역복지 네트워크의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각 기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단체들이 ‘지역복지 사업추진’이라는 공동의 합의 속에 네트워크를 구성했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추진과정에서는 해당지역 동사무소를 통해 대상자 추천을 받는 등 민관협력 면에서도 의의를 갖는다.

이러한 네트워크 공동사업이 가능했던 것은 이대성산

종합사회복지관(지역사회발전센터), 마포자활후견기관, 마포연대(시민단체)가 추진하고자 했던 지역복지사업의 개발과 확대라는 욕구가 적절히 부합되었기 때문이다. 아현동에 위치한 마포자활후견기관은 간병지원사업을 새롭게 확대하면서 간병욕구가 있는 지역 주민을 파악하고자 했고, 시민단체인 마포연대는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지원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 이를 위해 저소득층 지역 주민의 욕구를 파악하고자 했다. 이대성산종합사회복지관은 아현동지역이 저소득층 밀집지역임에도 복지의 사각지대라고 판단하고 복지사업을 추진하고자 아현동에 분원을 내고 초기 인테이크를 진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동안 월 2회 마포복지 네트워크 회의에 참여했던 이대성산종합사회복지관과 마포자활후견기관, 마포연대는 자연스럽게 아현동 지역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조사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에 합의할 수 있었다. 3개 기관의 욕구에 부합한 조사사업은 이대성산종합사회복지관이 복지욕구 전반에 대한 사항을, 마포자활후견기관은 간병 관련 사항을, 마포연대는 건강 및 의료 관련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맡아 문항을 구성하였고, 인력을 나누어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아현동 지역 주민의 복지욕구를 파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방문한 각각의 사례들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사무소(아현1동 사무소)의 사회담당과 연계하여 안타깝게 공공부조에서 소외되어 있는 저소득 대상층을 찾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후속 사업을 마련하였다.

## 지속사업으로 사업 확대, 마을축제위원회도 구성해

현재 마포자활후견기관은 발굴된 가정에 간병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마포연대에서는 아름다운가게 동교점의 지원금을 확보하여 반찬지원과 지역의 의료인들과 함께 의료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아현동 조사사업 이후 이대성산종합사회복지관은 마포자활후견기관과 마포연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아현동 지역에 서비스 중복을 피하고 다른 지역으로의 사업의 확대를 위하여 복지관 인근 지역에 또 다른 분원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나아가 마포지역 복지네트워크는 아현동 지원사업 뿐 아니라 마포구 여러 단체가 산발적으로 진행하던 마을축제를 보다 통합적이고 다양한 장으로 확대하기 위한 마포마을축제위원회를 구성하는 데까지 합의를 이뤄냈다. 이로써 각 단체가 위치한 지역을 벗어나 보다 많은 마포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2004 마포마을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었으며 이로써 네트워크 공동사업의 또 다른 결실을 이뤄낼 수 있었다.

이와 같이 각각의 지역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사회 기관이 연대하는 지역복지 네트워크를 통해 각 기관들이 서비스 중복을 막을 뿐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공동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지역복지 사업의 규모와 질의 향상이 가능해짐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지역복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



▲ 마포지역 복지 네트워크는 마포구의 마을축제를 통합해 마을 축제위원회를 통해 ‘2004 마포마을 축제’를 개최하였다. 사진은 마을축제위원회의 회의 모습과 축제장면